

부품 · 소재발전기본계획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이태용 과장

들어가며

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분야에서 우리나라를 2010년까지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하에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와 Global Sourcing 추세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이 완제품 중심에서 부품·소재 중심의 경쟁구조로 전환되고 부품·소재가 신기술·신제품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는 가운데, 80년대 중반이후 범국가적으로 부품·소재의 국산화시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부품·소재의 높은 수입의존도, 대일의존 현상의 심화는 우리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병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과거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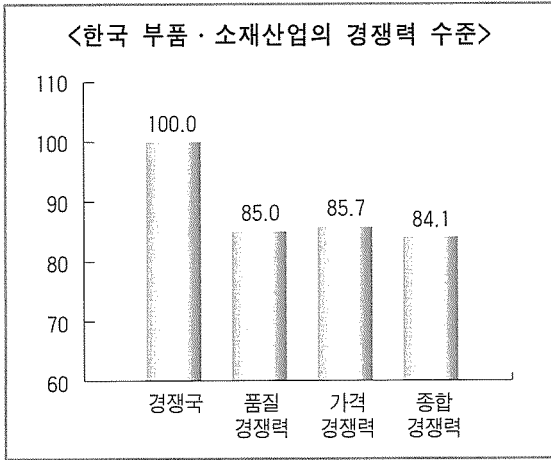
품·소재 산업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과 세계 최고의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금번에 산·학·연과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금번에 수립된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은 먼저 세계 부품·소재산업의 동향과 우리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부품·소재분야의 세계적 공급기지화(MCT-2010: Material & Component Technology)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기본 발전전략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부품·소재산업의 동향과 우리의 현황

세계 부품·소재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부품·소재의 기술은 환경 친화성, 안전, 편리성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부품의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수준>



전자화 진전, 신소재 기술 응용 등 기술간 융합화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와 더불어 부품·소재 수요업체의 조달체제도 IT화의 영향으로 인터넷 구매를 포함한 외주확대 및 세계적 조달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품의 단품발주보다 모듈 및 시스템 발주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부품·소재기업들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 대규모 기업간 M&A를 통한 초대형화를 진전시키고 있으며,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확충하기 위해 합작투자, 생산·기술·판매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그 동안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기술주도국이면서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에 불과하며 가격과 품질을 포함한 경쟁력 수준도 선진국의 85%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전문기술인력부족으로 기술개발에 많은 애로를 느끼면서도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금액은 미미하며, 개발된 기술도 신뢰성인증제도의 미비나 경쟁제품의 덤핑가격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21세기 부품·소재산업 비전

21세기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비전은 수출확대와 독자적 기술기반의 구축을 통해 2010년까지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수출은 2000년 647억불에서 2010년에는 1,475억불로 증가하고, 수입의존도는 현행 39.2%에서 36.4%로 지속 감소하여 2010년에는 현재보다 5배 이상 증가한 500억불의 무역흑자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부품·소재산업 동향과 우리 현황 비교>

구분	기술동향 및 수준	부품·소재기업동향	구매조달 동향
세계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소, 극한, 초경량, 고기능을 추구 IT기술의 발전으로 기술간 융합화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전문화·대형화 추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구매 활성화·코스트 경쟁 심화 영향으로 글로벌 소싱 보편화
한국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기술등 핵심 기술은 주요 선진국의 약 65% 가격과 품질을 포함한 종합 경쟁력은 약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의 영세성과 수요업체와의 전속적 거래 독자적 기술개발과 자금조달에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시장 의존적 마케팅 제한된 수요처와 과당경쟁으로 수요산업에 종속

<부품·소재산업 비전>

	2000년		2010년
수출(억달러)	647.5	⇒	1,475
수입(억달러)	547.6	⇒	975.0
무역흑자(억달러)	99.8	⇒	500
수입의존도(%)	39.2	⇒	36.4
선진국대비	70	⇒	90~95
기술경쟁력(%)			
세계일류기업(개)	30	⇒	150

또한, 기술수준은 설계기술·신기술운용능력 등 핵심 기술력의 향상을 통해 생산기술을 포함한 종합 기술경쟁력은 현행 선진국의 70%에서 90~95% 수준까지 근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부품·소재 3대 발전목표

(1) 세계 일류의 품질 및 기술을 보유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정부는 매년 1,000개씩 부품·소재에 특화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중견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인텔, 델파이와 같은 세계적 전문기업이 150개정도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의 독자적 기술기반 구축

세계시장 선점효과가 큰 핵심 부품·소재 기술을 매년 50개 이상 발굴하여 민간 투자기관과 함께 매칭펀드를 구성, 향후 10년간 2조원이상을 지원하여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미 2000년도에 가스터빈블레이드등 45개 품목의 기술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금년에도 약 50여개의 기술과제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3) 우리 기업들의 세계적 조달 네트워크 참여 촉진

부품·소재의 글로벌 소싱 확대에 따른 선진국 간의 조달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 국제 인증획득 등을 지원하여 세계 시장진입 기반을 다져 나가 고 부품·소재의 총생산중 수출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을 현행 43%에서 5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부품·소재발전 5대 핵심과제와 실천방안

(1)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대형화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독자적인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자율의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분사화를 통한 핵심역량 집중 등이 활성화되도록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여건을 개선하고 부품의 표준화와 공용화를 촉진할 것이다.

○ 부품·소재기업들의 규모의 영세성

- 영세성으로 인해 설비투자·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한계

※ 50인미만 기업비중('99) : 기계 93.5%, 자동차 83.2%, 전자 82.6%

※ 자동차부품 매출('99) : 한국전체(168억\$), 美 델파이社(292억\$)

○ 세제·재정지원 등이 중소기업 보호 위주로만 운영 되어 전문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유인 제공이 미흡

또한, 부품·소재 전문 벤처기업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서울 흥릉벤처벨리, 대전 대덕벨리를 부품·소재특화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2) 부품·소재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먼저,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의 산업단지와 기술혁신센터(TIC)를 기반으로 현장중심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의 우수 기술자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기술연구원·기계연구원 등 15개 공공 연구기관들로 지난 6.18일 발족한 「부품·소재 전문기업지원센터」를 적극 가동하여 전문 연구원들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맞춤형 기술제공사업」을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기술정보 제공(200건), 연구인력 파견(45사) 및 해외 기술이전(10건)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3) 개발된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

예써 개발된 국산 부품·소재가 수요기업들의 사용기피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매년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50여개 품목의 신뢰성 평가·인증을 추진하여 향후 10년간 500개 핵심 품목에 대해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미 작년에 유압실린더, 콘덴서 등 12개 품목을 시범인증 하였고 금년에는 소형 정밀모터등 42개 품목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에 착수하고 있다.

또한, 신뢰성평가·인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계공제조합 및 민간 손해보험 기관을 통해 신뢰성 보험사업을 하반기부터 실시하여 수요기업들의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선진국의 65%에 불과한 신뢰성 수준을 2010년에는 9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촉진 및 투자유치 확대

먼저 업종별 단체와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세계 부품·소재업계의 동향과 구매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2년부터 「부품·소재산업 종합박람회」를 연례 개최하여 부품·소재의 종합 거래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

또한, 관련 단체와 KOTRA를 통해 매년 기술개발과 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50개정도 선

부품·소재 강국으로 가는 방안

비전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2010 : 무역흑자 500억불 달성)				
발전목표	전문기업육성 세계 일류 기술· 품질보유 기업 150개	독자 기술기반 구축 매년 50여개 이상 10년간 2조원 지원	세계적 조달 네트워크 참여 수출비중 43%('00) → 50%('10)		
핵심과제	전문화 대형화	기술력 제고	신뢰성 향상	수출촉진 투자유치	정보화

정, 수출 Leading Company로 지정하여 해외 무역관을 지사로 제공하고 각종 전시회, 상담회의 우선 참가 등을 지원토록 할 것이다.

한편, 단기간 기술개발이 어려운 첨단분야에서 2010년까지 200개 해외 부품·소재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간다는 목표하에 대불·진사공단 등 부품·소재 해외기업전용공단의 투자유치 기반을 확충하고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해 해외 자본투자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다.

특히 일본 부품·소재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한·일 부품·소재산업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인천 남동공단과 일본 오타구간의 투자협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5) 부품·소재산업의 정보화의 체계적 지원

부품·소재산업의 종합적인 정보 PORTAL의 기능을 수행할 「부품·소재통합정보시스템」을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 구축하고 투명한 조달관행 확립을 위해 인터넷 조달을 위한 e-marketplace 개설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 부품·소재업체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동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ERP, ASP 등 정보화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도 적극 지

원해 갈 것이다.

맺음말

정부의 금번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부품·소재산업을 IT·BT와 더불어 새 천년 우리 경제의 성장 주도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나라가 향후 10년내에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산업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부품·소재산업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구현에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대상기업들의 72%가 현재는 선진 부품·소재기업들과 많은 격차가 있지만 부품·소재산업이 21세기의 성장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관계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부품·소재산업이 새 천년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으로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된다.